



1 공단 사옥 2 협약을 체결하는 김상균 이사장, 박수현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장,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왼쪽부터) 3 화상회의하는 김상균 이사장

### “철도 유휴부지가 청년 일자리 위한 희망 공간으로”

공단은 한국철도(코레일),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7월 1일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김상균 이사장, 박수현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회장과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을 비롯해 세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철도공단 철도시설 공공가치 제고 사업 ‘가속도’

철도공단은 철도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공기업 책임 이행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또 철도 유휴부지 개발사업을 활성화해 국내 철도자산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대외적으로 ‘K-철도’를 해외에 전파하는 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제로 에너지 철도역사’ 건설 본격 추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7월 1일 태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하는 제로 에너지 철도역사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경기 화성시 송산면 서해선 106 역사를 제로 에너지 철도역사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에너지 소비량 최소화 설계로 제로 에너지 건축물 예비 인증을 취득했다.

올해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 구간 중 영주역사 등 연면적 1천㎡ 이상 역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모든 신설 역사를 제로 에너지 철도역사로 건설할 계획이다.

김상균 이사장은 “제로 에너지 철도역사 건설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부응하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 기관은 철도 유휴 공간 활용과 공간 재구성, 주요 역사 내 광고·홍보 사업, ‘청년과 도시’를 테마로 한 국내 및 글로벌 사업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철도역 주변 유휴부지를 청년을 위한 창업 공간, 커뮤니티센터 등으로 개발해 공공가치를 높이고 서울역 등 주요 역 영상매체를 통해 이번 협력사업을 홍보할 방침이다.

### 코스타리카 철도사업 수주 추진

공단은 지난 6월 30일 엘리사벳 히메네스 코스타리카 철도청장과 화상회의를 하고 코스타리카 산호세 광역여객 철도사업 참여와 기술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이 사업은 코스타리카 수도 산호세 광역권을 동서로 연결하는 총연장 84.9km의 철도 개량사업이다. 총사업비 1조8천억원 규모로, 연말에 발주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현지 출장이 연기돼 화상 회의로 수주 지원 활동을 펼치게 됐다”며 “그동안 축적한 철도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남미 철도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

